



우리시대 참스승

일동초등학교 교장 김 병 준

스스로 공부 · 참여 여건 조성

“생각이 옳고 바르면 행동도 따라간다”

사람과 존경이 함께 하는 즐거운 학교에서 바로고 슬기롭게 꿈을 키워 가는 어린이 육성에 중점을 두고 일동초등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김병준(56·사진) 교장은 어려서부터 교육자 집안에서 성장해 자연스럽게 교사가 되고 교장이 되었다.

교장으로 정년 퇴임한 부친의 뜻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착한 마음과 바른 행동'을 교육목표로 삼아 학생들 지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교장은 영월군 쌍용초등학교, 양구군 양구중학교, 춘천시 춘천고등학교와 춘천교육대학을 졸업하고 1970년 양구군 방산초등학교에 초임, 발령된 현재까지 교직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1992년 경기도로 전입, 남양주 마석초등학교에서 7년 근무하다가 신북면 외북초등학교에서 근무중 교장으로 승진해 남양주 창현초등학교로 발령되었다가 그곳에서 교장으로 승진해 외북초등학교에 부임해 근무하다가 2005년 9월 1일 일동초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다.

김 교장은 배움이 즐거운 학생, 사람이 있는 학교, 가르침이 기쁜 교사가 하나 되어 나라를 사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어린이, 스스로 탐구하고 자기를 계발하는 어린이, 질서를 존중하며 협동적으로 생활하는 자율적인 어린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교장은 일동지역 주민들의 교육열기가 높아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동초등학교 노력중점으로 기초학력 책임제 운영, 한자 인증제 운영, 생태·자연 교육 특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특색사업으로는 독서교육의 활성화, 특기 적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기 적성교육으로는 컴퓨터, 바이올린, 리코더, 그로사운드, 과학교실, 영어, 사물놀이, 축구, 수화영재, 수영 등의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김 교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내년부터 봄에는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가을에는 학예발표회를 예술축제로 실시기로 했다고 한다. 예술축제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마친 학부모나 지역주민들도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김 교장은 전교생이 무대에 1회 이상 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일동초등학교는 수영선수도 발굴하고 있다.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심유명 선생의 노력의 결과다.

또 김희태 축구교실도 자랑할만하다.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 일동중·고에 진학하여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자랑한다.

김 교장은 일동초등학교 어머니회와 녹색 어머니회를 통합해 보람교사회를 조직했다고 한다. 보람교사회는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 교장은 세상이 변해 이제는 사람들이 학교교육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학교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사,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동초등학교는 아주 잘 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생활현안이 곤란한 학생들이 20여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이들 학생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학교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또 일동초등학교에는 2개의 특수학급이 운영 중에 있다. 특기적성 강사가 이들 학생들을 위해 사물놀이를 교육하고 있는데 특수학급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한다. 또 한화콘도에서 1개월에 1회 목욕봉사를 해주고 있는 점도 아주 고마운 일이다.

일동초등학교 학생들이 2006년 포천에너지연대회에 참가해 리코더 금상, 합창 장려상을 수상하고 제3회 포천시 유소년축구대회에서 3위 입상, 그로사운드 늘푸른예술제에 참가 장려상, 2006춘천교음악콩쿠르 리코더합주부 장려상, 2006 MBC수영대회 싱크로나이즈 솔로3위, 듀엣2위, 2006초·중·고 학생체육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김 교장의 착한 마음, 바른 행동을 강조하는 교육철학에서 비롯되었음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科學을 생활속에 應用

대진대 산학협력단 발명경진대회 시상식

대진대학교(총장 이천수) 산학협력단(본부장 안재우)은 11월27일 오후3시 대진대학교 본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제11회 경기북부학생 창업아이템 및 생활용품발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9월20일부터 10월31일까지 작품을 접수받아 11월8일 창업아이템 부문과 생활용품발명 부문으로 나눠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한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안재우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본부장은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경기북부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을 생활 속에 응용할 수 있는 생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대회 심사에는 백경갑 대진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박승욱 대진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주)세뿔 문정훈 대표이사, 더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유상무 변리사 등이 참여했으며 시상식은 대진대학교 경검교 공과대학장, 조동현 경기대진테크노파크본부장, 이정례 대진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등이 실시했다.

다음은 이번 대회 수상자들의 명단 및 출품작이다.

창업아이템 대학부 ▶최우수(대진대학교교장님) Share System(박호상 홍승기 고재하) 3D DMU(Digital Mock-Up)설계 및 PDM(Product Management)을 활용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최한 제11회 경기북부학생 창업아이템 및 생활용품발명경진대회 시상식이 11월27일 오후3시 대진대학교 본관 국제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한 시제품(PR)제작 사무실 ▶우수(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님) 대진대학교 화학공학과(윤태오) RAIN BOWL(휴대용 우산 포장장치) ▶장려(한국발명진흥회) 산공업고등학교(김지혜 김별 황대환) 리본피아(리본으로 여는 아름다운 세상) ▶최우수(대진대학교총장님)백악고등학교(김민수) 블루싱 자동차 범퍼 ▶우수(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님) 의정부광동고등학교(임철범 임기성 김현수) 창의력 블러코스터 ▶장려(한국발명진흥회)

의정부광동고등학교(박민지 안병용 고재관) 사위하며 마사지를 ▶특별상(포천시장님) 부용고등학교(이재학) 바퀴를 이용하여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유아용 캐리어의 편리함 ▶생활용품발명 ▶최우수(특허청장님) 의정부광동고등학교(염기성) 추달린 다리미 ▶최우수(대진대학교총장님)백악고등학교(김민수) 이어폰 내장형 mp3 ▶우수(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님) 주영고등학교(정경욱) 불박이장에서 꺼내 쓰는 의자 ▶장려(한국발명진흥회) 주영고등학교(김도윤) 빛나는 영화표 ▶특별상(경기도교육감님)주영고등학교(권홍일) 미끈거리지 않는 키보드.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미래 꿈나무 위한 空間 마련

영중 교육문화센터 · 꿈나무도서관 준공식

영중면(면장 이석호)은 11월24일 박운국 포천시장을 비롯한 각 기관 단체장 및 마을주민 등 내외귀빈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중교육문화센터 및 꿈나무도서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양주승 영중면 주민자치위원장장은 “영중면 어린이들

과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을 위해 종합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면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며 너도나도 영중면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중교육문화센터는 총사업비 52억원을 들여 2005년6월21일부터 2006년9월3일까지 영중면 암문리 833-2번지 등 2필지에 부지면적 6천600㎡, 건축면적 1천331.34㎡(연면적 2,522.27㎡) 규모로 신축했다.

지상1층은 면사무소, 농민상담소, 보건소, 꿈나무도서관이 지상2층에는 AV감상실, 취미교실, 회의실, 헬스실, 어린이도서관, 대강당, 지하층은 기계실, 전기실, 창고, 지하저수조와 부대시설로 주민광장, 상징조형물, 주차장 49면이 조성됐다.

김미경 주부영예기자단

영중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영중면은 11월24일 박운국 포천시장을 비롯한 각 기관 단체장 및 마을주민 등 내외귀빈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중교육문화센터 및 꿈나무도서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리더(Global Leader) 육성

보장初, 돌아오는 농촌학교 간담회

보장초등학교(교장 정재명)는 백년 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소규모 오지학교에 좋은 교육여건을 마련하고자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보장초등학교는 지리적으로 도시

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에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학생수가 감소하는 것이 크 나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5년9월1일에 제13대 교장으로 부임한 정재명 교장과 전교직원

이 혼연일체가 되어 다른 학교에서도 희망하고 있는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 대상학교로 2006년 8월에 선정이 됐다.

보장초등학교는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리더(Global Leader) 육성을 위한 전일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더불어 지식 기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문화인 육성을 위해 다양한 특기 적성 교육으로, 사교육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도·농간 소득격차를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다시 찾아오는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고 있다.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필수권장 프로그램으로 태권도 컴퓨터 등 5개 부서, 선택 프로그램으로 락밴드, 미술부 등 4개 부서, 다른 학교에서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GL 프로그램으로 아침시간을 이용한 창의성 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2개 부서,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월 1회 특색학교 운영이나 방학중에 실시하고 있는 월1회 특색학교 프로그램이나, 방학 중에 실시할 느티나무 학교 프로그램은 체험위주 교

육활동으로 전개하고 있어 다른 학교에 일반화 시켜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 일반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보장초등학교는 11월 21일 돌아오는 농어촌 육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 일환으로 학교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 9개 부서의 특기적성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어린이들의 하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자율 하교차량을 운행하여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지난 10월부터는 아침등교 시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녹색어머니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었으며, 주 1회 화상실 청소도 도움을 주는 등 학부모들께서 학교를 위한 일에는 자진하여 참여하고 있다.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운영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안정적인 교육재원 지원을 위한 마을 협업 특용작물 농장운영 계획으로 연간 2천만원의 교육재원 마련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보장초등학교 학생은 60여명에서 향후 90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농촌학교의 모델학교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best114@paran.com



주제: '돌아오는 농촌학교' 활성화 방안

윤중성의
마음이따라하기

- 20. 얼마동안 머무실 건가요?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 하루를 아우고니스테이?
* 6일간 있을겁니다.
I'll stay for 6 days.
- 아일스테이 휘씩스테이스
- 21. (식당 예약) :
* 7시에 네사람 예약 하고 싶은데요.
I'd like to book a table for four at seven.
아드라이브투커테이블 휘휘엠펬
- 네분, 좋습니다. 성함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Four, O.K. and may I have your name, please?
휘, 오케이, 앤메이해뷰어네 임,플리시?
- 22. (소프) :
* 전부 얼마 이지요?
1) How much will be together?
* 하머휘을비투게더?
2) What is my total?
2) 위리스 마이토틀?
- 세금 포함해서 250 불입니다.
It's \$250 including tax.
익스 투한드레드휘티 인크루딩텍스
* 이게 다입니다. 얼마 이지요?
That's all, how much do I owe you?
댓실, 하머휘두아이오유?
- 75 불 20 센트입니다.
That will be \$75.20.
대틀비 세븐디화이브달라스 튀나헨스

문의: 윤 중성 (017-723-4977 coolyon@nate.com)

《 함께 공부해요 》

明君臣之義(명군신지의) 군신간에 의리를 밝힘 ⑥

慕齊 金文敬 公安國日
平時則勿欺盡職 하고
臨危則效死勿貳 니라.

모제 김문경 공안국월
평시즉물기진직 하고
임위즉효사물이 니라.

문경공(文敬公) 모제(慕齋) 세종이 비록 성군의 자질을 타고났지만, 그 시대의 명신(名臣)들이 없었다면 그저 평범한 임금이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명신과 명장으로 일컬어지는 신하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자질이 있었다더라도 세종 임금 같은 성군을 만나지 못했다면, 일찍이 제거되었거나 정치일선에서 밀려나고 그 직분을 다할 것이요, 위태로운 때를 당해서는 목숨을 바치고 두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세종이 비록 성군의 자질을 타고났지만, 그 시대의 명신(名臣)들이 없었다면 그저 평범한 임금이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명신과 명장으로 일컬어지는 신하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자질이 있었다더라도 세종 임금 같은 성군을 만나지 못했다면, 일찍이 제거되었거나 정치일선에서 밀려나고 그 직분을 다할 것이요, 위태로운 때를 당해서는 목숨을 바치고 두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시적지에 배치하여 능력껏 기량을 발휘하게 하는 용인술! 그 용인술은 곧 군신(君臣)간의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서로 간에 굳건한 믿음이 없었다면 성군도 명신도 명장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마상에서 천하는 얻을 수 있지만 마상(馬上)에서 천하는 다스릴 수는 없다.”

오늘날의 위정자와 민중간의 불신의 벽은 너무 높아 넘기가 힘이 들어 불안하기만하다.

양 주 승
본지 지문원장
(문의:011-354-6485)

김미경 주부영예기자단

영중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영북노인대학은 11월24일 영북면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수료생 70명과 노인대학 관계자, 각급 기관단체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